

---

**ISSUE 09**

---

**Now Artist  
City Now  
Style & Art  
Artists & People  
Collector  
2015 Exhibition  
Masterpiece**


**artnow**

---

**by  
Noblesse**

# 문성식

# Sungsic Moon



면목동에 있는 문성식의 스튜디오에는 한창 제작 중인 폭 4m의 풍경화가 걸려 있었다. 지금까지 발표한 작품 중 가장 큰 규모다. 고향 경북 김해에서 촬영한 숲 속 사진이 벽에 여러 장 붙어 있었다. 그에게 숲은 “생의 드라마가 교차하는 신비하고 아름답고 징그러운 곳”이다. 한때 ‘2005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최연소 작가’라는 수식은 달콤한 독과 같았다. 가상의 무대에 세운 을씨년스러운 인공 정원 풍경은 그의 ‘시그너처’로 알려졌고, 그 이미지만 빠르게 소비됐다. 정제된 화면 구성과 페티시즘에 가까운 세밀한 붓 터치가 특징이었다. 오랜 침묵 끝에 2011년 국제갤러리에서 열린 〈풍경의 초상〉전은 그가 작가로서 목표로 한 과업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자리였다. 캔버스에 연필과 수채 물감으로 덩덤하게 담아낸 장면은 관람객의 감정을 동요시키는 힘이 있었다. 문턱에 앉아 먼 산을 보는 과부, 닭을 잡는 사내의 뒷모습, 손을 잡고 나란히 걷는 세 장님, 울무에 걸려 몸부림치는 고라니, 거대한 먹빛 저수지에서 아무 말도 없이 낚시하는 두 형제, 무더운 여름밤 동네 잔치처럼 치른 할머니의 장례식, 교미하는 어미와 새끼 개, 영정 사진을 찍는 할아버지, 중년 남녀의 악다구니와 같은 야유회, 플라스틱병에 뱀을 넣고 구경하는 아이들 등. 한 편의 단편소설 같은 그의 작품에는 인간의 삶과 죽음, 욕망을 둘러싼 무수한 시선과 아이러니가 교차한다. 그에게 그림은 자신이 경험하고 이해한 ‘단 하나뿐인 세계’를 그리는 것이다.

◆ 1980년 경북 김천 출생.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와 예술전문사 과정을 졸업했다. 〈바람 없는 풍경〉(2006년), 〈풍경의 초상〉(2011년), 〈Sungsic Moon's Drawing〉(2013년) 등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몽인아트스페이스, 창동미술창작스튜디오의 입주 작가였다. 베니스 비엔날레(2005년), 프라하 비엔날레(2010년), 몬차 조바니 비엔날레(2011년) 등의 국제 기획전에 참여했다.

어떤 작가는 개인적 사연을 털어놓는가 하면, 어떤 작가는 그런 일에는  
관심도 없다. 문성식의 작품에 담긴 이야기는 대부분 그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직접 경험한 일이다. 대자연 속 인간사를 담은 그의 작품은  
삶과 죽음, 성(性)과 속(俗)에 관한 아포리즘 같다. 작가는 낙서나  
일기처럼 꼬적이는 드로잉에서 더 큰 자유로움을 느끼는 듯 보인다.  
남화연은 작품에 직접 등장하지 않고, 일종의 프로그램 설계자나  
프로듀서 같은 역할을 맡는다. 그녀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협업자는  
퍼포머. 작품에 등장하는 그들은 작가가 부리는 살아 있는 인형이자,  
작가와 작품을 완성하는 주인공 노릇을 동시에 수행한다.

문성식, 꽃과 사람, 종이에 아크릴 물감, 112×76cm, 2013 /  
아담과 이브, 종이에 아크릴 물감, 112×76cm, 2013 /  
늙은 아들과 더 늙은 엄마, 종이에 아크릴 물감, 112×76cm, 2013 /  
남화연, 가변 크기, 퍼포먼스, 2013

